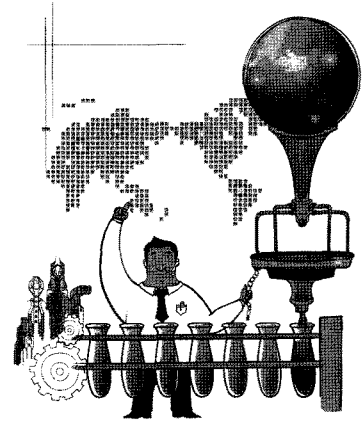


# SW 해외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IBM, 애플과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 8명의 SW 산학연 전문가들이 6월 14일 개최된「글로벌 SW Korea 포럼」에서 한국 SW 글로벌 선도기업 부재원인과 기업의 역할 등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동 포럼은 오해석 청와대 IT특별보좌관, 지식경제부 안현호 차관,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국내외 주요 SW기업 임원과 유관 연구기관 등 약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美·日 SW 시장 전문가의 유망 진출분야 발표, 글로벌 4위 패키지SW 기업인 SAP 성공사례 발표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전략’에 대한 토론의 順으로 진행되었다.

지식경제부 안현호 차관은 축사에서 “20조원에 불과한 내수시장을 볼 때,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의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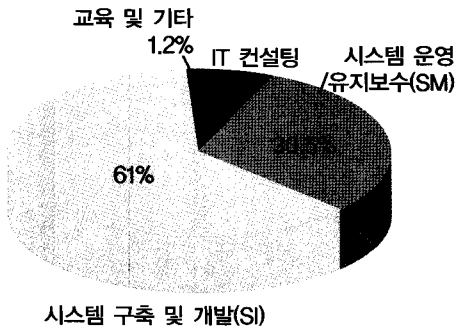
“현대차는 1975년 포니 5대, 조선산업은 1967년 어선 20척 수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선두주자로 성공한 것처럼, SW기업도 도전정신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글로벌 선도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해석 IT특보는 격려사에서 “2010년을 SW 해외진출의 元年”으로 삼아 업계·정부·학계 등과 SW 수출을 위한 다양하고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최근 대기업의 해외건설, 유전개발 시 그룹사 IT서비스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사례는 좋은 사례로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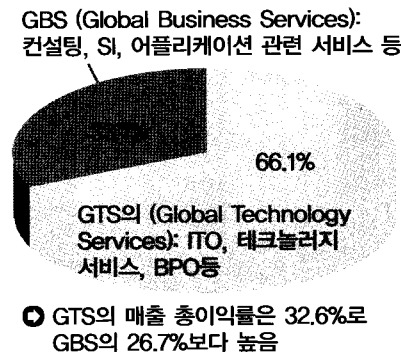
포럼의 하이라이트인 ‘전문가 토론’에선 PwC

국내와 외국 IT서비스 기업 매출비중 분석 ]

〈 국내 IT서비스 부문별 생산액 비중 〉



〈 IBM IT서비스 사업영역별 매출 비중 (2008) 〉



컨설팅이 발제한 ‘글로벌 SW 선도기업 육성전략’ \*에 대해 SW 수출기업 대표, IT서비스 업계 임원, 교수, 해외시장 전문가, 언론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90여분에 걸친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국내 SW기업과 ① IBM 등 SW 글로벌 선도기업, ② 자동차 등 국내 타업종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SW 글로벌 선도기업 부재원인 파악(지경부 → PwC컨설팅 위탁. '09.12~'10.6)이다.

PwC컨설팅에 따르면 IT서비스 기업의 경우, 외국 선도기업에 비해 SI(System Integration)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타업종 국내 선도기업에 비해서는 그룹사 차원에서 SW를 핵심 비즈니스로 인식하지 않아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패키지SW는 외국 선도기업이 매출 중 개발용역 비중이 2~30%로 낮는데 반해 우리기업의 경우 약 50% 정도로 높아 구조적으로 수익구조

가 취약한 것을 글로벌 선도기업의 부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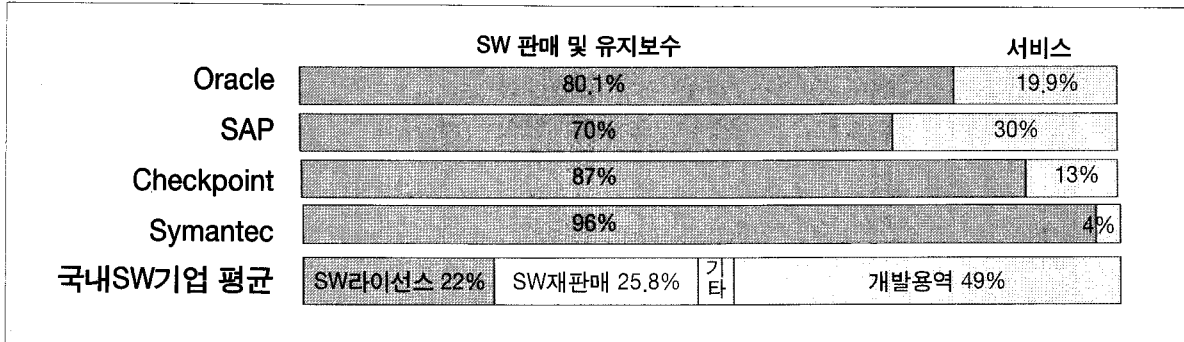
- 특히, 반도체분야의 삼성전자는 1990년도 불황에도 과감한 투자를 감행, 세계 최초로 16매가 D램을 개발하고, 조선분야의 현대중공업은 조선소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초대형 유조선 을 수주하는 등 강력한 도전 정신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였다.

반면, 과거 우리 SW기업은 R&D 투자 미흡과 협소한 내수시장에 안주, 결과적으로 한국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해외 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순위는 IT서비스에서 삼성SDS(58위), LG CNS(76위), SK C&C(99위)이고, 패키지 SW에서 안철수 연구소(361위), 핸디소프트(375위)이다.

토론 진행을 맡은 국민대 남영호 교수는 향후 글로벌 선도기업 출현을 위해 “SW산업을 그룹사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략적

【 글로벌 패키지SW기업과 국내기업간 매출 비중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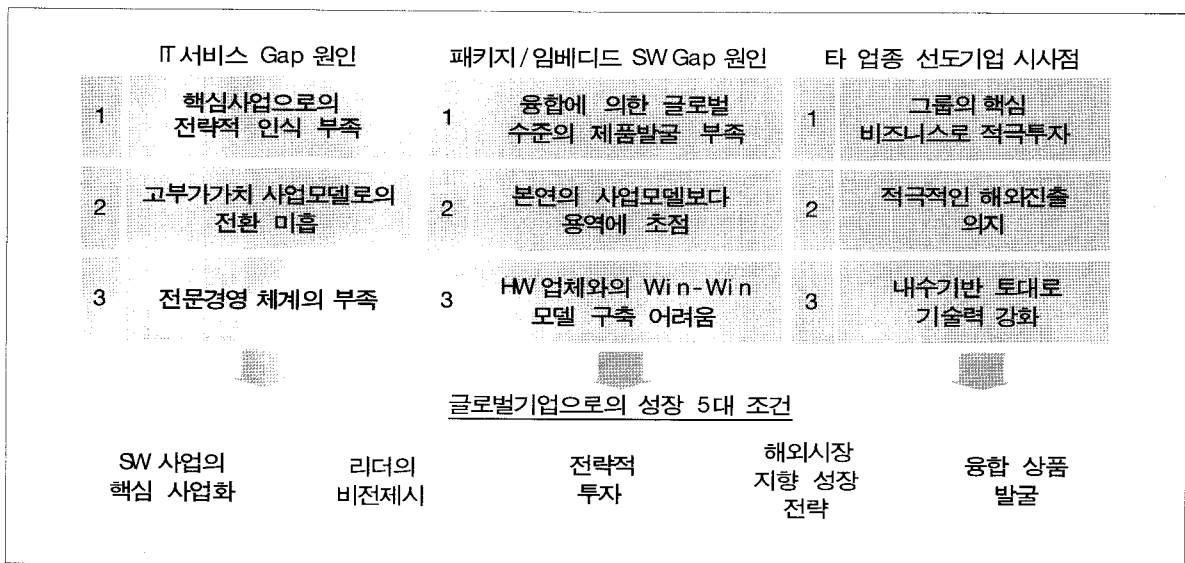
투자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그 선결 요건으로 기업이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경쟁력 확보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고 90여분에 걸친 토론 결과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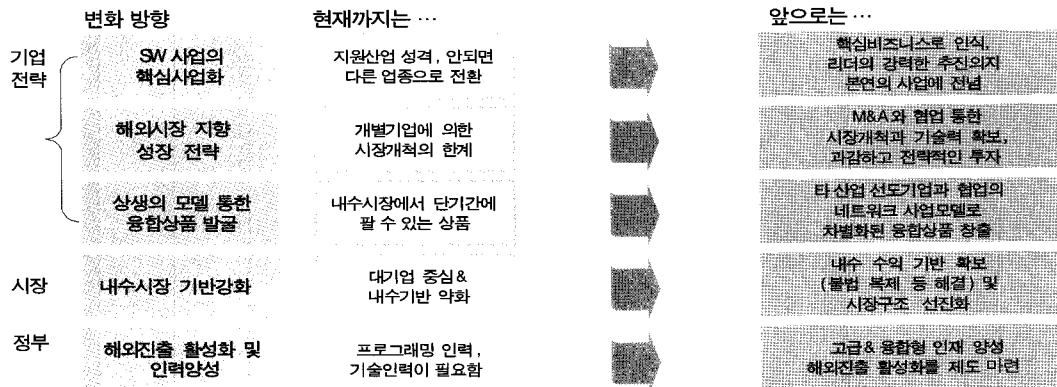
한편, 토론에 앞서 글로벌 SW시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망 진출 분야를 설명하는 주제 발표에서는, 일본 野村 종합연구소 유혁 실장이 일본 SW시장 유망진출 분야로 검색엔진(온톨로지

시멘텍), 문서관리툴 등을, 미국 ETRI 김종갑 미주사업화센터장은 의료 영상촬영(PACS), 모바일 바이러스 백신 등을 미국 SW시장 유망진출분야로 추천하였다.

선도기업과의 갭 극복을 위해 SW산업에 대한 전략적 인식 변화, 해외시장 초점 성장전략, 융합모델의 발굴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SW사업을 핵심비즈니스로 포지셔닝하여 과





감하게 투자하고 산업간 융합상품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지향의 비즈니스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米·日 SW 진출 유망분야 분석 결과를 보면, 선정방법에서 대상은 미국의 패키지SW 20개, IT서비스 17개 분야를, 일본의 패키지SW 58개, IT서비스 20개 분야이다.

기준은 우리 SW의 경쟁우위, 해외 SW 시장 상황, 즉 규모, 성장률, 경쟁 강도 등이다. 방식은 1, 2차 및 최종 스크리닝을 거쳐서 유망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 선정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1차 스크린에서 시장성장률, 시장집중도, 산업내 특화 SW 비율 등이고, 2차 스크린에서 국내 SW기업의 단·중기 진출 가능성이다.

일본의 경우, 1차 스크린에서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 2차 스크린에서 산업 성숙도, 경쟁강도, 최종 스크린에서 국내 패키지 SW기업의 사업수행 역량이다.

유망분야는 미국의 패키지SW에서 의료영상

촬영, 모바일 바이러스 백신과 해킹방지 등을 포함한 보안, 웹컨퍼런싱과 소규모업종 특화 등의 인터넷,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 헬스케어 등의 모바일, 이러닝SW와 전자출판SW의 교육 등이다.

미국의 IT서비스에서 의료정보관리와 약제정보화시스템 등의 보건시스템, 여권비자 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위험물질 관리시스템, 테러예방정보시스템 등의 국토보안시스템이다.

일본의 유망분야 패키지SW에서 검색엔진, 문서관리툴, 아이덴티티관리툴, 웹싱글사인온과 전자메일아키브툴, 통합로그관리툴, 전자메일 암호화툴, 전자메일오송신방지를 포함한 보안이다.

일본의 IT서비스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IT투자증가의 운수시스템, 인수합병과 업무제휴의 증가로 경영관리 관련 IT투자증가의 도매시스템, 진료보수 온라인청구의 원칙적 의무화 및 진료영상 디지털화 장려정책을 포함한 의료시스템이다.